

# “청년들 농촌 유입 이끌기 위해 실속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제주 농업, 청년이 미래다

## 4. 양익현 굴메달 이사

### ● 농부가 된 영어학원 원장님

지난 15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만난 청년농 양익현(34)은 영어학원 원장이었다.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제주에 내려와 영어학원을 다시 운영하던 그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2만평 규모의 감귤밭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그는 동생인 양제현씨와 함께 ‘굴메달’을 설립했다.

영어학원 원장 그만 두고 농사일 뛰어들어  
동생과 굴메달 설립, 마케팅·브랜딩 집중  
제주감귤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  
감귤주스 사업 눈길, 서울 팝업스토어서 완판  
퍼주기식 지원 벗어나 실속 있는 지원 절실  
청년농들에게 온라인 커머스 도전 조언

형인 양익현씨가 이사를 맡아 감귤 재배를 책임졌고, 동생인 양제현씨는 대표를 맡아 ‘마케팅’에 집중하는 분업 형태였다. 설립 1년간 간지 컨테이너에서 일하던 형제의 ‘굴메달’은 어느덧 제주 감귤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했다. 마케팅과 브랜딩에 집중한 결과였다. 양씨는 “감귤은 사실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이면, 명인이 아닌 이상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며 “처음 1년 동안은 동생과 고생을 많이 했지만, 브랜딩에 투자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 감귤주스 ‘완판’ 행진

‘굴메달’은 감귤주스 사업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설탕과 물, 방부제 등을 전혀 넣지 않은 100% 제주산 착즙 주스로 주스 시장에 뛰어든 굴메달은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통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굴메달은 지난 6월 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첫 ‘완판’을 기록했고, 지난 6월 16일 더현대 서울에서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어 한 번 더 ‘완판’을 기록했다. 감귤, 카라향, 황금향 등 제주산 과일 그대로를 맛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양씨는 “전화를 많이 주셔서 브랜딩의 주 타깃을 주스로 하고 있다”며 “솔직히 주스 사업이 이렇게 잘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무작정 퍼주기 아닌 ‘실속 있는’ 지원 있어야

양씨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퍼주기 지원이 아닌 실속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제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빌리는 것도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육받으려면 따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들이 교육받으면 바로바로 등록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해결했다면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5억원 융자가 지원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고 지원이 막혀버린 상태”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용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씨는 또 “청년농에게 온라인 커머스 지원도 되고 있지만, 사실 곁길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박람회 등에 청년농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 제주 농가 온라인 커머스 도전해야

양씨는 제주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온라인 커머스’에 도전해 제주 감귤 브랜드를 널리 알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씨는 “저희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이게 거꾸로 하면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며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피력했다.

양씨는 이어 “새로 농사에 도전하는 청년농에게도 온라인 커머스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조언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양익현 굴메달 이사가 지난 15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감귤 농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연탄에 구워 더 맛있는 누구나 좋아할 맛! **소덕38막창곱창**

2023년 11월 17일 **OPEN**

소덕(所德) 남의 덕을 입음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소덕38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금번 주위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소덕38막창곱창**을 **11월 17일 오픈**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맛, 고객 감동, 정성만을 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요리를 준비하고 고객님을 맞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주시면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양훈 외 직원일동

연탄더덕 막창곱창 | 연탄더덕 고추장불고기 | 돼지 막창곱창전골

주소 : 제주시 과원북 4길84 (소덕38막창곱창)  
문의 : 소덕 064.901.2238, 010-3699-8000